

Music: 원점

[강추강추] 소금을 적게 먹으면 혈액이 썩는다.

요즘 유난히 패혈증이라는 병명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웃음건강전도사 황수관 박사도,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도 패혈증으로 사망하면서, 이 병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패혈증은 혈액이 부패한 증세로 혈액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다.

이 패혈증이 매년 3 만 오천~4 만 명이 발생한다고 한다.

혈액이 썩어 간다는 것은 혈액 속에 소금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즉 혈액 속에 소금 농도가 0.9%가 안 된다는 뜻이다.



또 당뇨병 환자가 500 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당뇨병도 혈액 속에 소금보다 당분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다.

혈액 속에 당분이 많으면 혈액이 끈적끈적 해지고 썩어 들어가는 괴사증으로 인해,

나중에는 발과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병이다.

청혈해독(淸血解毒)의 차, 된장차



몰바른 단식을 위한, 아침의 차

전 세계적으로 30 초마다, 다리를 절단한다는 통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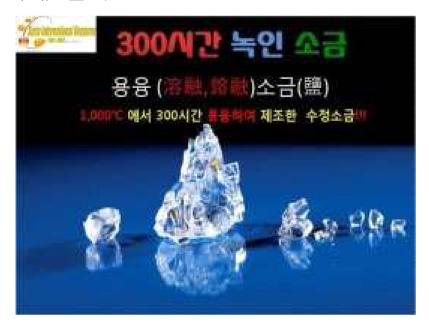
소금을 적게 먹게 되면 본능적으로 당분을 많이 찾게 된다.

소금을 적게 먹고 당분은 많이 먹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관이 잘 통하지 않게 된다.



마치 머리카락에 꿀물을 발라 놓으면 머리칼이 끈적거리고, 서로 달라붙는 것과 같은 혈관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나중에 혈액이 썩게 된다.



또 당뇨병은 소변에 당분이 많이 나오는 병이다.

그것은 당분을 많이 먹고, 소금을 적게 먹어서 생기는 병이다.

당뇨병은 소금만 충분히 먹어 주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다.

이런 병은 모두 혈액 속에 소금 농도가 0.9%이하이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링거 (소금물 0.9%)를 환자들에게 꽃아 서 부족한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를 높이고,

수분을 보충해서 탈수를 막고,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소금은 환원력이 강한 알칼리성 성분으로, 세포막이나 대사물질을 환원시켜서 본래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의 흐름이 개선되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세계 최장수 국가인 독일인들은 세계적으로 소금을 가장 많이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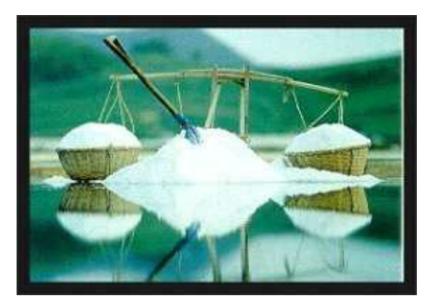
독일인 1 인당 하루에 25 그램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다.



반면 에스키모인들은 물고기의 염분 이외에는 소금을 전혀 먹지 않는다.

그래서 평균 연령이 40 세로 전 세계에서 수명이 가장 짧다.

이것만 봐도 의사들이 소금을 적게 먹도록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문제는 어떤 소금을 먹느냐이다.

소금에는 간수, 가스, 중금속이 들어 있는 소금도 있고,

소금이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페로시안 나이트 즉 독약인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소금이 많다.



반대로 인체의 필수 성분이며,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수 NaCl 99.9% 의 소금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쁜 소금과 좋은 소금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부터 가정에서 미네랄, 가스, 간수가 없는 깨끗한 소금을 깨끗한 물에 타서 링거의 핵심인

약 1%의 소금물은 "마시는 링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금은 생명의 핵이며, 생명 그 자체이다.



이제 일반인들도 소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소위 전문가 집단이 퍼뜨리는 소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휘둘려서 건강에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출처] 소금, 소금이야기





우리 벗님들~! 健康조심하시고 親舊들 만나 茶 한잔 (소주 한잔) 나누시는 餘裕롭고 幸福한 나날 되세요~^

